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연중 제28주일 2016.10.9.(다해) 제2020호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건천성당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루카 17,17)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은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 하십시오.”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여 치유를 받은 열 사람 가운데 감사를 드리러 돌아 온 이는 외국인인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도 감사하기를 잊은 나병 환자 아홉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1독서 2열왕 5,14-17

제2독서 2티모 2,8-13

복음 루카 17,11-19.

입당송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화답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를 배려해주는 가족과 이웃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각

한인갑 베네딕도 신부 | 이동본당 주임

어떤 신학생이 칠곡 가톨릭피부과병원에 있는 한센인 공동체에 봉사 활동을 갔습니다. 봉사 활동이라고 해 봐야 입원실 청소를 도와주고 외로운 분들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음성 환우들이었기에 감염 위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의 흔적이 팔과 다리, 얼굴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분들을 대할 때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만 함께 있으면 그런 느낌은 다 사라진다는 선배들의 말을 듣고 열심히 청소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봉사 활동이 다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원 식당 안 그 신학생 앞자리에 한 명의 한센병 환우가 앉았습니다. 그 분은 특히 얼굴에 병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던 분이었습니다. 눈 한 쪽과 코가 없었고, 독한 약의 영향으로 얼굴빛이 거뭇했습니다. 서로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데 그 환우가 자신의 식판에 있는 삶은 계란을 손으로 집어 건네주며 ‘학사님, 하나 더 드세요.’ 라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 학생은 삶은 계란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큰 용기를 내어 맛있게 먹는 척하고 학교로 돌아온 학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머리로만 사랑을 이해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학생이 26년 전 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려 열 명의 한센병(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약이 없을 때니까 당연히 전염될 수 있는 양성 환자들이었을 것이고, 말할 수 없이 일그러진 외모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라면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소리치며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다가오는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 눈에 나병 환자는 중죄인이었습니다. 접촉하거나 만나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그저 치유가 필요한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그 시각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비’라는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열 명 가운데서 한 명은 자신이 치유된 것을 깨닫고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이 열심히 청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거저, 공짜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시각을 배우시다. 그리고 이미 삶 안에서 거저 받은 수많은 선물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문**

학교 밖 아이들

행복한 진로 찾기

임석환 스테파노 신부 | 대안교육담당

“너는 뭐하고 싶은데?” “몰라요!”
 “뭐 좋아하는데?” “몰라요!”
 “꿈이 뭐니?” “몰라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던 한 여학생이 화장용품을 가득 담은 트렁크만한 짐짝을 이 멀리까지 끌고 와서는 화장과 분장에 열을 올립니다. 아무 꿈도 없고 자기 꿈도 몰랐던 이 아이는 이제 메이크업이 꿈이 되었습니다.



제가 금산 간디학교라는 곳에서 1년 여 동안 연수를 다닐 때 함께 하던 젊은 친구는 별 볼일 없이 커오다가 갑자기 별에 관심이 생겨서 천문학에 대한 전문 지식은 물론, 천문학 동호회를 통해 직접 장비를 사용하여 천체를 관측하고 천체관측을 위한 세계의 명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은 초등대안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별 볼일 없다고 여기던 그 친구는 지금 별을 주제로 하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수많은 학교에서 별자리 특강을 하는 명사가 되었으며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돈을 많이 벌려면 상류 직업을 가져야 하며, 상류 직업을 가지려면 일류 대학에 합격해야 한다.”라는 성공담론은 언제의 이야기인지요? 행복한 아이는 반드시 스스로의 진로를 찾아내고야 만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정해진 규칙 속에서 만들어진 길로 길들여져 가는 아이들보다 여러 가능성을 두고 스스로를 개척할 줄 아는 아이들이 분명 행복한 진로를 먼저 찾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나면 많은 부모들이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다양성에 기반을 둡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칭찬하는 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칭찬이 존재하는 학교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은 항상 불균형을 가정합니다. 한 발은 스스로 체득한 안전지대에 걸쳐 있고, 다른 한 발은 늘 위험지대에 두고 두드려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공부 때문에 성당 주일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행복한 진로를 찾는 데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필문**

학교 밖 청소년·학교 부적응 학생 관련

문의: 가톨릭청소년대안교육센터,

053)643-7624

후원: 대구은행, 505-10-178097-9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꿈뚝자리)

복음의 눈으로 문화 읽기

많아지면 달라진다?!

배영인 바오로 신부 | 성정하상바울로본당 보좌

‘많아지면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나 혼자 힘으로 바꿀 수 있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가 일상화되어 있는 시점에 나온 이 말은 현대 사회의 특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지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하여 발전하는 SNS는 세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참여’, ‘공유’, ‘개방’입니다. 곧 SNS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보를 개방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운영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여론을 조성하고 크나큰 지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힘은 한 사람의 지식과 정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아지면 그 힘은 증폭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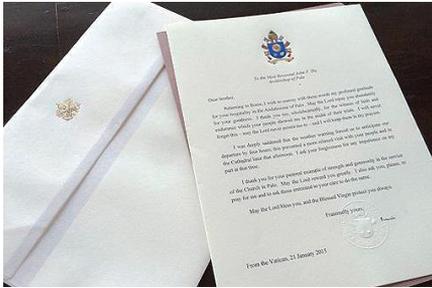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연결망은 우리 교회 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에 대해 복음의 눈을 갖고 접근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을 복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나 혼자 신앙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복음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서로 소통하고 함께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큰 힘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진다면 이 세상 또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회 관계망 안에서, 신자들은 자신이 지닌 희망과 기쁨의 깊은 원천을 나누며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이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신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입니다.”(교황 베네딕토 16세, 제47차 홍보 주일 담화 중에서) **필문**

교황님 이야기

교황님의 문서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회칙 “찬미받으소서”, 칙서 “자비의 얼굴” 등을 통틀어 교황문서라고 하는데 각각 사용되는 용어에 따라 그 중요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이나 교황청의 공식문서들을 말하는 교황문서는 내용면에서 신앙과 도덕을 가르치기 위한 것과 교회와 신자들의 통치에 관한 규율적인 것 등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따라 전 세계 교회에 관한 보편적인 것과 특정인물이나 사건에 관한 개별적인 것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황문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교황령(Apostolic Constitutions)은 극히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교황문서로 교황님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문서 중 가장 장엄하고 최고의 권위를 지닙니다. 교황령은 교의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교회법을 고치거나 새로운 교회의 구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교황님의 입장인 ‘어부의 도장’을 찍어 봉인하는 칙서(bulla)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의교서(Motu Proprio)는 칙서 다음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교황문서로 교황님 자신의 고유한 주도권을 가지고 내는 법령입니다. 대개 행정에 관한 문서로, 결정을 법제화 하거나 교회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회칙(Encyclicals)은 교리나 규율에 관한 것으로 전 세계 교회에 대해 교황님께서 발표하시는 공식적인 사목교서를 말합니다. 주교들에게 보내는 형식을 취하지만 교의적 논점은 세계의 모든 신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진 대부분의 문헌들이 회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황서한(Litterae Apostolicae)은 시성발표, 주교나 추기경의 서임, 교구 설정 등 행정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청원에 답하는 문서들입니다

교황교서(Apostolic Letters)는 교황령이나 교령(Decretal Letters)에 비해 덜 장엄한 문서입니다. 보통 전체 교회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이나 단체에 주는 문서이며 법적 구속력은 거의 갖지 않습니다.

교황권고(Apostolic Exhortation)는 교황이 특정한 활동을 재촉하면서 어떤 공동체에 제시하는 격식 있는 가르침입니다. 법적 구속력을 지니기보다는 권면적인 성격을 띕니다. 따라서 권고는 교의를 규정하지 않기에 중요도 수준은 회칙이나 교황교서보다 낮습니다.

이 밖에도 교황문서에는 담화, 훈화, 연설, 강론, 메시지, 알현, 편지 등이 있습니다. **필문**



교구 행사

■ 2대리구 교구장 대리 취임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2대리구 교구장 대리 이성환(베르나르도) 신부의 취임미사가 9월 28일(수) 오후 7시 30분 주교좌 범어대성당 대성전에서 봉헌되었다.

■ 옥계성당 견진성사

조환길 대주교는 10월 2일(일) 오전 10시 30분 옥계성당에서 91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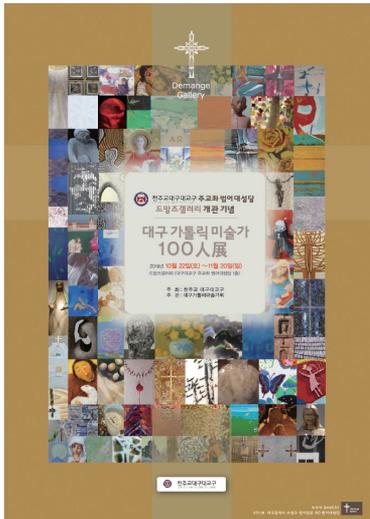
■ 무학중학교 개교 50주년 기념미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무학중학교 개교 50주년 기념미사가 9월 30일(금) 오전 11시 조환길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 영천성당 견진성사

장신호(요한 보스코) 보좌주교는 10월 2일(일) 오전 11시 영천성당에서 107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였다.



천주교대구대교구 주교좌 범어대성당 드망즈갤러리 개관 기념

〈 대구가톨릭미술가 100인전 〉

기간: 10.22(토)~11.20(일) / 오픈식: 10.22(토) 17:00

장소: 드망즈갤러리(범어대성당 1층)

주최: 천주교대구대교구 / 주관: 가톨릭미술가회



미사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0일(월) 10:30 범어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0일(월) 13:30 월성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0월 10일(월) 11:00 황성성당	포항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0월 10일(월) 19:00 4대리구청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0일(월) 11:00 신평성당	대구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0월 12일(수) 19:30 교구청 별관 302호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0월 10일(월) 11:00 죽도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5일(토) 10:00 월성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0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자: 10.15(토)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주제: 천주의 성요한과 환대영성

문의: (010)3800-1579

<http://www.johnofgod.or.kr>

빈마음 성소 모임

일시: 10.16(일) 14:00

장소: 수원 본원

주최: 성빈센트드쁠자비의수녀회

문의: (010)8833-8107

예수회 10월 성소 모임

일시: 10.22(토) 14:00

장소: 관구 본부(서강대 옆)

문의: (010)6245-1608

<http://vocation.jesuits.kr>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기간: 10.18(화)~19(수)

장소: 효령하늘집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 하는

주고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054)382-0091

예수성심시녀회 우애 피정

기간: 11.5(토)~6(일)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앗숨 분원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010)9286-2247

부산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일일 피정

일시: 10.23(일) 10:00~17:00

장소: 부산 본원 / 회비: 무료

주제: 성모님의 삶_마음의 선교사

대상: 35세 이하 남녀 미혼 청년

문의: (010)4203-3217 / (010)9330-3104

교육 | 모집 | 기타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2박 3일: 11.4(금) 17:30~6(일)

4박 5일: 10.17(월) 14:00~21(금)

8박 9일: 10.17(월) 14:00~25(화)

걷는기도: 10.21(금) 19:00~22(토)

문의: (031)946-2337~8

이스라엘·동부지중해 성지순례 크루즈

기간: 11.27(일)~12.10(토) 13박 14일

장소: 이스라엘, 이태리, 그리스

경비: 내측 498만원, 발코니 548만원

문의: 가톨릭신문사, (02)2281-9070

28회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출발: 12.31(토) 4주, 8주

설명회: 10.22(토) 14:00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1월 정규 입학 모집

기간: 단기, 장기 / 대상: 초5~중3

주최: 그리스도의레지오수도회

문의: (02)2258-8983

<http://www.oakinternational.co.kr>

일본 가고시마교구가 주관하는 성지순례

출발: 10.30(일), 11.6(일), 11.21(월)

11.27(일), 12.26(월) 4박 5일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 63만원

내용: 일본 가고시마 주교 만남 및 안수

문의: (070)5110-3449 / (010)3005-9028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홍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살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H. 016-518-2223
010-8345-9479

위령회장 이주석 요셉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0-3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 중 문(파비올라)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성모발현지(스페인,포르투갈,프랑스)
이탈리아, 발칸 성지순례 모객 중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를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화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행사 | 모임

10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0.16(일) 14:00
 1~3대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구구: 5대구구청, 평화성당

제30차 교구 올드레아

일시: 10.15(토) 9:00
 장소: 성김대건기념관
 주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문의: 꾸르실료, 254-4671

한티순교성지 매일미사

시간: 매일 11:00
 장소: 순례자성당(점심 예약가능)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김종숙(요안나) 도예성물 전시회

기간: 10.7(금)~16(일)
 장소: 동성로 바오로팔서원
 주제: 묵주기도의 어머니
 주최: 성바오로팔수도회, 425-5185

백합어린이집 입학설명회

일시: 10.20(목) 10:30
 장소: 어린이집 강당
 영유아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문의: 256-6862

교육 | 모집

10월 가나 강좌

일시: 10.16(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접수) 무료주차
 문의: 250-3114

34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개설

기간: 10.27~12.1(매주 목, 9:30~14:30)
 11.17(목) 수능으로 인한 휴강
 장소: 화원성당 / 10만원
 대상: 가족을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
 문의: 교구 가정담당, (010)6499-3114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10.9(일) 15:00 / 회비: 1만원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사회교리학교 개설

기간: 11.7~12.5(매주 월) 19:3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마감: 11.3(목) / 회비: 5만원(교재제공)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250-3163

대구ME주말_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45차 ME주말: 10.21(금) 19:00~23(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부부는 작은 교회입니다.

한중친선협회 회원 모집

동아리(중국어 / 성경, 성가, 회화 등)

월례회(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친교)
 중국 / 성지순례, 문화탐방, 여행활동
 대상: 중국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010)2662-1560

제대꽃꽂이봉사자 제9기 수강생 모집

신청기간: 9.20(화)~10.31(월)
 아카데미수강생 수료전시회
 기간: 11.9(수)~11(금)
 주최: 전례꽃꽂이연구회
 문의: (010)3544-0268

10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10.22(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의 극복 / 강사: 임효덕(레오) 교수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2017 자율형사립고 대건고 입학설명회

인성 등업, 학력 등업, 대건 등업
 일시: 10.15(토) 14:00
 장소: 대건고 안드레아관
 원서접수: 11.7(월)~10(목)
 문의: 입학홍보실, 235-4560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서정임(마리아), 배운정(테오도라)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우리아이 아플땐?
한영한마음 아동병원
 손찬락(라파엘) 병원장/의학박사



월 일: 아침 9시 ~ 밤 11시
 토요일: 9시 ~ 밤 11시
 (휴일: 9시 ~ 밤 11시)
 (주말: 9시 ~ 밤 11시)
 (연말연시: 9시 ~ 밤 11시)
 (방학: 9시 ~ 밤 11시)

☎ (053)256-2512 (대표), 2513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 · 혈당계 · 휠체어 · 산소치료기
 뜰 · 부항기 · 주열기 · 찜질기
 체온계 · 옥창매트 · 환자용품 · 안마기
 실버카 · 보호대 · 글루코사민 · 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 (053)256-2512(대표), 2513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 베 스)

백 합 식 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참맛
 수녀원 메주, 된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대구 053)257-1771
 공장(자인) 053)857-2037
 www.spcfood.co.kr

Legend of Royal
Rex Diamond
 더렉스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 고품종 중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종아주차 무료)
 ☎ (053)428-7989 | 010-4439-9991
 교수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www.bae2duos.com
백두정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배덕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 425-5919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발아플땐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시간신경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음산부인과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혈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